

한일 뮤지엄 휴식공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useum's Rest Area in Korea and Japan

조슬아*, 고정민**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

Seul-A Jo(mallow_j@naver.com)*, Jeong-Min Ko(spin3002@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뮤지엄을 대상으로 관람객의 피로도를 감안한 뮤지엄 공간이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피로도 저감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대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공립 기관으로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일본의 국립신미술관, 도쿄국립박물관을 선정했다. 연구방법은 1차 조사로 뮤지엄 평면도 분석과 2차 조사로 관람객 동선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관람동선 내 휴식공간이 있고, 휴식공간의 배치와 조망권이 좋은 곳은 도쿄국립박물관과 국립신미술관이며, 관람동선 내 휴식공간이 배치되어 있지만 동선상의 휴식공간의 배치와 조망권이 좋지 않은 곳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다. 마지막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관람동선 외 휴식공간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휴식공간의 조망권도 좋지 않은 곳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각 뮤지엄에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뮤지엄 피로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관람동선을 고려한 뮤지엄 공간계획과, 휴식공간의 공간요소에 적합한 공간배치와 시설계획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중심어 : | 뮤지엄 | 미술관 | 피로도 | 휴식공간 | 조망권 | 공간계획 |

Abstract

This study covers museum rest areas among the methods that reduce museum fatigu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Seoul branch of the representativ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National Museum of Korea. These museum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National Art Center of Tokyo and Tokyo National Museum. The first research step was the analysis of museums' floor plan, and the second step was the tracing survey of visitors' move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The National Art Center of Tokyo and Tokyo National Museum had the rest space within the visitors' route along with good viewing areas. National Museum of Korea had poor viewing area even though there was the rest space withing the visitors' route. Lastly, Seoul branch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had the rest space out of visitors' route along with poor viewing area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guidelines for museum space plan with visitors' route considered, so that their museum fatigue can be relieved along with the guideline that can be applied to space elements of rest space.

■ keyword : | Musium | Art Musium | Fatigue | Rest Area | Viewing Area | Space Plan |

* 본 연구는 2016년 제1저자인 조슬아의 홍익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을 발전시킨 것임

접수일자 : 2016년 02월 24일

수정일자 : 2016년 05월 09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5월 24일

교신저자 : 고정민, e-mail : spin3002@hanmail.net

I. 연구목적

여가활동은 2003년 7월부터 시작된 주 5일 근무제도가 실시되면서 삶의 영역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며, 다양해지고 있다[1]. 2014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3년 대비 2014년에 8.9%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이와 같이 다양한 여가 문화활동이 증가하면서 기획자들은 이들 수요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뮤지엄의 경우 단순히 작품전시만을 위한 기획에서 더 나아가 작품과 관람객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엔터테인먼트적인 공간을 같이 구상한다. 이제 뮤지엄의 역할은 단순히 전시를 관람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보고 배우며 소비활동을 하고 공연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념이 확대되었다[3].

소비차원에서의 뮤지엄 활동은 본질적으로 관람객 자신이 직접 전시공간을 이동하면서 고정되어 있는 전시물과 연속적인 시각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4]. 이러한 활동은 관람객에게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람 중 정신적인 피로감과, 전시공간을 이동하면서 육체적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관람도중 느끼는 정신적 및 육체적 피로감은 뮤지엄 재방문 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중요 원인이다[5]. 따라서 관람을 하면서 느끼는 피로감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소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된 피로감을 해소시키는 휴식공간의 구성요소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사례 조사하고자 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일본의 국립신미술관과 도쿄국립박물관이다. 각 뮤지엄의 평면도 분석과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뮤지엄 간의 휴식 공간의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관람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뮤지엄

사람들에게 미술관과 박물관은 별개의 시설로 인식되고 있지만 미술관이라는 용어는 영어 ‘아트 뮤지엄(Art Museum)’ 이 한자로 번역되면서 파생된 명칭으로 일본 메이지시대 이후부터 한자문화권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6]. 따라서 미술관은 박물관 건축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종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뮤지엄’을 미술관과 박물관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뮤지엄은 “고고학적 자료, 미술품, 역사적 유물 등 학술적 자료를 모아 보관, 진열하고 관람객에게 진람시키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다. 즉, 뮤지엄은 예술분야에 특화된 시설로 작품에 대한 수집, 보관, 연구, 전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20세기의 뮤지엄은 사물 중심에서 사람에게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했다. 연구와 보존 그리고 전시를 통한 교육이라는 초기 뮤지엄의 기본 역할이 현대에 들어 한계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전시방법을 동원하여 작품을 재현하는 다양한 작품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전시공간은 작품과 공간을 이어주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작품과 공간의 관계 형성은 관람객에게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전시 공간의 경험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7]. 또한 뮤지엄의 방문 목적은 더 이상 지적인 호기심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휴식을 위한 방문목적으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다[8].

따라서 새로운 개념과 기능, 설립 목적,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적인 부분까지 역할을 확장하고 관람객의 형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관람객과 소통하고 접촉하기 위해 관람객의 관점으로 뮤지엄이 연구되고 있다. 결국 오늘날의 뮤지엄은 단순히 전시를 보러 오는 1차원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소통의 장이 되고 도시의 상징이 되며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그 역할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2. 뮤지엄 피로도

뮤지엄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문화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닌 복잡한 삶과 반복되는 일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방문한다. 또한 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며 편안함을 느끼고자 한다. 그러나 뮤지엄 관람객들은 전시를 관람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 필요 이상의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전시공간 안에서 관람객은 몸을 움직이면서 고정된 전시물과 연속적인 시각적 활동으로 뮤지엄 경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4]. 이러한 경험은 관람객에게 육체적, 심리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피로감은 관람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며 뮤지엄의 재방문을 하지 않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5].

뮤지엄 피로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전시실 배치, 기둥의 배치여부, 전시 벽의 색, 전시박스의 배치, 휴식공간의 배치, 물리적 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시장의 벽면에 많은 작품이 걸릴수록 관람시간은 단축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큰 규모의 뮤지엄보다 소규모의 뮤지엄에서 작품을 오래 감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원인은 관람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누적되는 피로 때문이었다[9]. 또한 지속적으로 관람하고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을 감상한 실험 결과를 도출한 요인은 딱딱한 바닥이었다. 딱딱한 바닥을 걸을 때 피로가 가장 적었다는 것과 유사한 작품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작품에 관한 관람객의 관심은 줄어드는 것을 입증했다[9]. 처음 접한 몇 개의 전시실이 나중에 방문한 전시실보다 더 많은 관람시간을 소비하고, 전시장의 작품의 수와는 상관없이 전시장내에서 일정한 관람시간을 소비하는 것 또한 입증했다[10].

뮤지엄 피로도도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전시실의 출입구의 위치는 다음 전시를 준비할 수 있는 정보와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는 전이공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휴게실의 위치는 관람동선 사이에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전시장을 이동하기 위한 통로, 계단, 휴게실 등은 외부공간과 연계시켜줄 필요성이 있다[4]. 1회의 장시간 휴식을 취하기보다 짧은 시간 여러 차례 휴식을 취하는 것이 피로 누적을 피하고 관람의 집중력을 유지시키며 지속적인 관람에 도움이 된다[10].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휴식공간의 배치가 중요하다.

자연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외부 휴식 공간은

정신적 피로를 감소하는데 효과적이고, 내부에서 휴식을 취할 때 외부 자연풍경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피로도도와 집중력에 효과적이다[12]. 전시실 내의 좌석은 의자에 착석한 관람객과 전시실 순로를 진행하는 관람객의 동선, 전시물의 특성에 알맞게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고, 기존 뮤지엄의 공간구조 방식으로서 전시공간과 휴식 공간을 분리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시공간과 휴식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13].

III. 연구과제 및 연구방법

1. 연구과제

뮤지엄은 문화향유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의 문화시설로 목표 대중에게 문화 예술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가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어, 관람하는데 불필요한 피로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피로도를 고려한 뮤지엄 휴식공간의 구성이나 배치에 대한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박물관 피로감의 요인과 해소방안에서 제시한 선행논문 중 뮤지엄 휴식 공간에 관련된 내용들만을 도출해서 [표 1]과 같이 연구과제를 설계했다.

표 1. 휴식 공간의 구성요소

	연구과제	선행연구
연구 과제1	전시공간과 휴식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한다.	윤성규 · 임채진 (2009), 정진아 (2002)
연구 과제2	전시공간의 좌석배치는 착석한 관람객과 전시실 순로를 진행하는 관람객 동선과 전시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윤성규 · 임채진 (2009), (문찬영, 1999)
연구 과제3	전시실 출입구는 다음 전시를 위한 준비, 정보와 휴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이공간으로 제공한다.	정진아 · 이희봉 (2003)
연구 과제4	휴게실의 위치는 전체 관람동선 사이에 배치한다.	정진아 · 이희봉 (2003)
연구 과제5	내부에서 휴식을 취할 때 외부 자연풍경을 보면서 휴식가능하다.	정재훈 · 이경훈 (2003)
연구 과제6	자연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외부 휴식 공간 배치한다.	정재훈 · 이경훈 (2003), 정진아 (2002)

2. 연구방법

연구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뮤지엄 대상지는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일본의 국립신미술관과 도쿄국립박물관이다. 선정된 한·일 뮤지엄은 국가의 국립기관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각국의 대표적인 뮤지엄이고, 한 해 관람객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전시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이라 판단하였다.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 중 서울관이 선정된 이유는 2013년에 새로 지어진 뮤지엄으로 새로운 뮤지엄의 공간 구성에 관한 경향에 대해 알아 볼 수 있고, 2007년에 지어진 관람객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둔 일본의 국립신미술관과 비교하고자 했다.

뮤지엄의 휴식공간 구성에 대한 6가지 연구과제를 각 뮤지엄의 휴식 공간에 적용하여 두 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로 각 뮤지엄 대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평면도를 분석했고, 2차로 관람객 동선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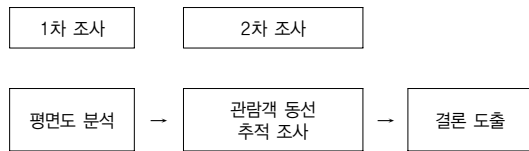


그림 1. 조사절차

평면도에서 제공하는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 등의 위치정보는 관람객에게 사전에 관람동선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관람도중 자신의 위치를 파악가능하게 한다. 이는 뮤지엄 관람객에서 정보전달을 제공하는 중요한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선정된 뮤지엄의 대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평면도를 기준으로 전시실의 위치, 휴식공간의 위치, 편의시설의 위치, 예상 관람 동선 등을 바탕으로 6가지 연구과제를 검증해 보았다.

하지만 평면도 상으로는 실제 뮤지엄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이동경로와, 행동관찰, 뮤지엄 내부에 배치된 휴식 공간의 구성요소가 분석되지 않으므로 2차 조사로 관람객 동선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뮤지엄 동선에 관한 연구는 작품의 배치를 위한 동선연구, 관람객 분산을 위한 전시동선 연구, 관람객 증가를 위한 동선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관람객 동선 추적 조사방법은 관람객 관찰조사 중에 하나로 연구자가 관람객의 동선을 추적하고 관람객의 이동경로를 평면도에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뮤지엄 내의 휴식 공간의 관람객 이용형태를 분석했다. 관람객의 대상자는 미술관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관람객의 대상자 중 단체 관람객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안내자의 의도에 따라 이동경로가 결정되므로 단체 관람객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의 대상의 유형은 1인 관람객, 2인 관람객, 3인 이상 관람객, 가족 관람객이다.

관람객의 이동경로와, 행동관찰, 뮤지엄 내부에 배치된 휴식 공간의 구성요소가 분석되지 않으므로 2차 조사로 관람객 동선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뮤지엄 동선에 관한 연구는 작품의 배치를 위한 동선연구, 관람객 분산을 위한 전시동선 연구, 관람객 증가를 위한 동선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관람객 동선 추적 조사방법은 관람객 관찰조사 중에 하나로 연구자가 관람객의 동선을 추적하고 관람객의 이동경로를 평면도에 기록하는 방법이다. 관람객 동선 추적 조사방법은 관람객이 미술관의 출입구를 입장하면서부터 관찰은 시작되고 관람동선 그리기(itinerary tracking) 방법을 이용하여 동선을 도출했다. 관람동선 그리기 방법은 관람객이 박물관 출입구로 입장한 순간부터 모든 관람을 마치고 출구로 나가기까지 모든 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기록한 것을 평면도 위에 동선을 그리고 각 연구 대상지의 관람객 이동 경로 동선의 평균적인 관람동선을 추출한다.

각 연구 대상지의 관람객 동선 추적 조사는 모두 주말에 실시했다. 무작위로 선출된 대상으로 개인관람객과, 2인 관람객, 3인 이상 관람객, 가족 관람객을 하루에 두 팀씩 관찰했다*.

이를 통해 뮤지엄 내의 휴식 공간의 관람객 이용형태를 분석했다. 관람객의 대상자는 미술관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관람객의 대상자 중 단체 관람객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안

* 부록 5 참조

내자의 의도에 따라 이동경로가 결정되므로 단체 관람객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의 대상의 유형은 1인 관람객, 2인 관람객, 3인 이상 관람객, 가족 관람객이다.

표 2. 관람객 동선 추적 관찰 조사 계획

관람동선 추적조사				
장소	국립현대 미술관(한)	국립중앙 박물관(한)	국립신미술 관(일)	도쿄국립 박물관(일)
일시	2015.10.3 2015.10.4 2015.10.31	2015.10.10 2015.10.11	2015.10.17 2015.10.24	2015.10.18 2015.10.25 2015.11.8
대상	1. 1인관람객, 2. 2인관람객 3. 3인이상관람객, 4. 가족관람객			
방법	카메라, 노트(관람객 행동관찰 기록), 관람시간 기록, 전시관 도면(도면에 관람동선 기록)			
관찰 후 분석	동선 추적된 도면을 over rap 고객 여정 지도로 분석 후 평균 이동 동선을 시각화			
총관람객 수	243명			

IV. 연구결과

1. 평면도 분석결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평면도 분석 결과 선행연구 토대로 작성된 6항목 중 적용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면도 상에는 지정된 휴식 공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전시실의 위치, 편의시설의 위치, 화장실의 위치, 이동수단의 위치만이 표기 되어있다.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2차로 실시되는 관람객 동선 추적 조사로 평면도 상에 표기 되어 있지 않는 휴식 공간의 위치 등에 대한 주변 환경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보강하기로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평면도 분석 결과 휴식 공간의 요소 6항목 중 3항목이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용된 3항목으로는 연구과제1과 연구과제3, 연구과제4이다. 연구 과제1에 적용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요소는 5곳으로 신라실과 회화실, 불교회화실, 사랑방실, 분청사기실에 전시실 내의 휴식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연구 과제3의 전시실의 출입구의 전이공간으로는 3곳이 표시되어 있는데 백제실과 1층 고구려실의 사이와 2층 회화실과 회화실 사이, 3층 청자실과 금속공예실 사이

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기되어있다. 연구 과제4는 전체 관람동선 사이에 휴식 공간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평면도상에 휴식 공간에 대한 표기는 전시실과 전시실을 이동하는 곳에 휴식 공간이 표기되어 있다. 1층 4곳, 2층 6곳, 3층 3곳의 휴식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있다.

국립신미술관은 휴식 공간의 6가지 요소 중에 3항목이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과제1의 내용에 일치하는 공간이 각 전시실 내부에 휴식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평면도 상에 표기되어 있다. 연구과제4의 내용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연구 과제6은 1층 전시실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휴식 공간에서 야외전시장으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평면도상에 표기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의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3. 평면도 분석 결과

	국립현대 미술관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신미술관	도쿄국립 박물관
연구 과제1		5곳이 표시되어 있음 (신라, 회화, 불교회화, 사랑방, 분청사기)	각 전시실 내부에서 이용 가능한 휴식 공간이 표기되어 있음	1 1과 1 3-1 사이, 1 8과 2 0 사이, 1-2와 3-1 사이, 8-2와 10사이에 휴식 공간이 표기되어 있음
연구 과제2		평면도 상에 표기되어 있지 않음		
연구 과제3	평면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음	3곳이 표시되어 있음(백제-고구려, 회화-회화, 청자-금속공예)	평면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음	전시실 사이에라운지, 전망대, 화장실이 표기되어 있음(1층 14-16, 2층 4-7사이)
연구 과제4		전시실 이동 동선 안에 휴게실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음	전시실 이동 동선 안에 휴게실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음	전시실 사이에라운지, 전망대, 화장실이 표기되어 있음(1층 14-16, 2층 4-7사이)
연구 과제5			평면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음	
연구 과제6		평면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음	1층 전시실 내부에 있는 휴식 공간의 경우 야외전시장으로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표기되어 있음	1층과 2층에 지정된 휴식 공간에 전망대가 같이 표기되어 있음

도쿄국립중앙박물관은 휴식 공간의 요소 중 5항목이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과제1은 1층 전시실 11, 13-1사이와 전시실 18, 20사이, 2층 전시실 1-2, 3-1사이와 전시실 8-2와 10 사이에 배치되어있는 것으로

* 부록1,2,3,4 참조

표기되어 있다.

연구과제3과 연구과제4는 1층과 2층에 동일한 위치(1층 14-16, 2층 4-7사이)에 라운지, 전망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연구과제5와 연구과제6은 1층과 2층에 지정된 휴식 공간에 출입이 가능한 전망대가 같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평면도 상에 표기되어 있다.

2. 관람객 동선 추적 조사 결과

4곳의 뮤지엄을 직접 방문하여 각 뮤지엄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무작위로 선출하여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를 실시했다<부록참조>. 추적조사 결과 평면도 상에 표기되지 않은 휴식 공간의 위치와 구성요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2차 조사로 실시된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 결과는 휴식공간의 요소 항목에 완전하게 해당되는 것과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나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휴식공간의 요소 6항목 중 연구과제3, 연구과제4, 연구과제5는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과제3과 연구과제5는 휴식공간 요소에 부분적으로 해당된다. 모든 전시실 출입구에 전이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전시실6 앞에만 전이공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내부에서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곳은 한 곳으로 1층 카페테리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 결과, 평면도 분석 결과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식 공간의 요소 중 연구과제1, 연구과제3, 연구과제4, 연구과제5가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면도 분석 결과와 차이점을 보이는 항목은 연구과제 5번으로 현장조사 결과 건물 끝에 위치하고 있는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휴식공간이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전시실 내부에 있는 휴식공간의 창문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자연환경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국립신미술관의 경우 앞의 뮤지엄과 동일하게 평면도 분석 결과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연구과제5는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 결과 국립신미술관 건물은 전체 외벽이 통유리로 설계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층이 아닌 건물내부 어디서든 외부 자연환경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전시실 내부에 있는 휴게실의 한 쪽 벽면 역시도 전체 통유리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실 내부의 휴식공간에서 자연풍경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휴식공간의 요소에 해당되는 다른 항목은 평면도 분석과 동일하다.

표 4. 관람객 동선 추적 종합 결과

	국립현대 미술관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신미술관	도쿄국립 박물관
연구과제 1	지정된 휴식 공간 없음	각층 전시실 내부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신라, 회화, 불교회화, 사랑방, 분청사기)	각 전시실 내부에 이용 가능한 휴식 공간 있음	11과13-1사이, 18과20사이, 1-2와3-1사이, 8-2와10사이에 휴식 공간이 있음
연구과제 2	전시실 내에 배치된 좌석 없음	전시실에 배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좌석은 중앙에 배치되어 있음 좌석에 착석한 관람객과 후에 동선을 진행하는 관람객의 시선과 충돌됨	전시실 중앙에 좌석이 배치되어 있음	전시실의 좌석 배치는 중앙과 벽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관찰됨. 하지만 대부분의 좌석은 벽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관찰됨
연구과제 3	대부분의 전시실에 전이 장소 없음. 전시실6 앞에 앉아서 전시 설명문을 읽을 수 있도록 의자가 배치되어 있음	대부분 전시실의 출입구로 입장하게 되면 좌석 배치된 간이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전시실 출입구의 전이공간은 없음	대부분의 전시실에 전이 장소 없음. 하지만 1층 14-16, 2층 4-7사이전시실 사이에 라운지, 전망대,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음
연구과제 4	전시마당 앞 의자와 전시실 6 앞에 배치된 의자는 관람동선 사이에 배치되어 있음	전시실 이동 동선 안에 휴식공간이 위치하고 있음	전체 관람 동선 사이에 적절하게 휴식공간이 배치되어 있음	전체관람 동선 상에 모든 휴식공간의 위치와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연구과제 5	1층에 마련된 카페테리아를 이용할 경우 내부에서 자연풍경을 보면서 휴식이 가능하다. 전미마당은 한정된 자연 환경만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자연풍경이라고 할 수 없음	내부에 마련된 휴식 공간은 창문이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 자연환경을 볼 수 없음. 하지만 전시실 외부에 있는 휴식 공간은 외부 자연환경을 볼 수 있음	건물 전체 외벽이 통유리로 설계되어 있어 미술관 내 지하를 제외한 어디서든 내부에서 외부의 자연환경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1층과 2층에 지정된 휴식 공간에 전망대가 같이 배치되어 있음
연구과제 6	지정된 외부 휴식 공간 없음	건물 안에 따로 지정된 외부 휴식 공간은 없음	1층전시실 내부에 배치된 휴식공간에서 야외 전시장으로 출입이 가능함	1층 전시실 내부에 있는 휴식공간의 경우 야외 전시장으로 출입이 가능함

마지막으로 도쿄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 동선 추적 조사 결과 휴식공간의 요소 6항목 중 전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면도 분석 결과에서 추가된 항목은 연구과제2로서, 도쿄국립박물관에 위치하고 있는 전시실 내부에 배치된 좌석의 대부분이 벽면에 위치하고 있어 좌석에 착석한 관람객의 시선과 후에 순로를 진행하는 관람객의 시선이 충돌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종합분석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뮤지엄 피로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휴식공간은 휴식공간의 유무, 휴식공간의 배치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휴식공간의 유무는 내부나 외부에 적절한 휴식공간의 있느냐의 문제이고, 휴식공간의 배치는 동선을 고려해서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거나 피로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다. 휴식공간의 유무는 연구과제1, 연구과제5, 연구과제6에 해당되는 것이고 연구과제2, 연구과제3, 연구과제4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4개의 유형으로 나누면,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과 국립신박물관은 휴식공간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의 배치도 피로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배치되어 있고, 조망권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쿄국립박물관의 경우 관람 동선 중에 관람을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되어 있다. 이 공간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첫째, 시간의 흐름대로 배치된 전시실의 지도를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재료를 이용하여 지도를 제작하여 관람객들이 손으로 만지며 해설을 들을 수 있었다. 둘째, 엽서 크기의 종이 한 장을 관람객에게 나누어 주어 일본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도장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게 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공간에서 관람객은 일본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닌 촉감으로 역사를 만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관람객은 장시간 관람을 하면서 축적된 정신적 피로를 해소시킬 수 있다.

또한 한·일 뮤지엄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뮤지엄의 관

람시간은 일본의 뮤지엄의 관람시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의 뮤지엄은 관람객이 느끼는 뮤지엄 피로를 적절하게 해소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한국의 뮤지엄을 관람객들이 인식하기에 자신의 편안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관람을 위한 장소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관람 도중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 기획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은 휴식공간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동선 상의 조금 갑갑한 형태로서 동선을 고려해서 배치가 적절하지 못하고 조망권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에는 휴식공간과 배치가 모두 원활하지 못하여 관람객들의 피로감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립현대미술관은 관람객의 동선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관람객의 피로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휴식공간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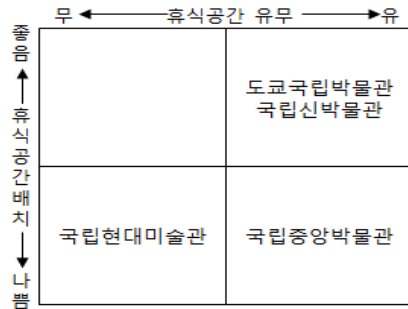


그림 2. 종합분석

VI. 결론

본 연구는 뮤지엄 관람 활동 중에 생기는 피로도를 경감시키는 휴식공간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한국 2곳과 일본의 2곳의 뮤지엄에 대해 평면도 분석과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선정된 뮤지엄 4곳 중 국립현대미술관을 제외한 3곳은 휴식공

간의 요소를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관람객의 피로를 해소 시킬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뮤지엄 내부에서 자연환경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으며, 관람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곳에 편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많은 양의 전시물 관람해야 하기 때문에 관람도중 생기는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람동선을 고려한 휴식 공간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전시실 입구에 전이공간을 구성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전시실 내부에 좌석을 배치하여 좌석에 앉아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실의 좌석 배치는 좌석에 앉은 관람객의 시선과, 후에 순로를 진행하는 관람객의 시선과 충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시실 내부에 배치된 휴식 공간은 불투명 유리로 이루어진 창문으로 자연환경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각종 끝에 자리 잡은 카페와 휴식공간에서는 외부 자연환경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일본의 국립신미술관은 여러 종류의 방문 목적을 가진 관람객을 수용하기 위해 뮤지엄 내부에 다양한 편의 시설(뮤지엄숍, 카페, 유명 레스토랑)이 구성되어 있고, 관람동선을 고려한 전시실 내부의 휴식공간 구조가 눈에 띄었으며, 뮤지엄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미술관 곳곳에 휴식 공간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다. 건물외벽은 외부 자연환경을 볼 수 있게 통유리로 설계했기 때문에 지하 1층이 아닌 어느 곳에서든 실내에서 외부 자연환경을 보며 실내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시킬 수 있다.

도쿄국립박물관은 관람동선 중간지점에 1층과 2층 동일한 구조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화장실은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각 층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어 많은 양의 관람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뮤지엄 내부에 카페, 레스토랑과 같은 편의시설이 없다. 하지만 도쿄국립박물관 전시실 4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관람 도중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뮤지엄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 기획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뮤지엄 피로도를 완화해줄 수 있게 관람객의 관람 동선을 고려한 뮤지엄의 공간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뮤지엄은 다양한 유형의 관람객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계획해야 한다. 이는 전시 관람을 위해 뮤지엄을 방문하는 관람객만을 위한 것이 아닌 문화시설 이용이라는 넓은 의미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뮤지엄은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편안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뮤지엄은 좀 더 뮤지엄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부합되는 공간구조를 고려해야하며 건축 설계 당시부터 고려되어 진다면 뮤지엄을 찾는 관람객들의 뮤지엄 피로도는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람객의 뮤지엄 피로도가 낮아지면 뮤지엄 재방문의사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러한 영향은 앞으로 뮤지엄을 방문하게 될 잠재적 관람객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뮤지엄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분석 항목이 휴식 공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뮤지엄 피로도에 미치는 다른 요소와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 방법으로 사용한 평면도 분석과 관람객 동선 추적 조사는 계량적인 방법을 통한 명확한 수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현장조사로 관람객을 추적하고 기록, 관찰한 관람객 동선을 추적함으로써 실제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동선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1] 고정민, 정연승, *주5일 근무와 소프트 산업의 변화*, SERI 연구보고서, 2002.
- [2] 문화관광연구원, *2014년 문화향수실태조사*, 2015.
- [3] Thompson, Don, "The Role of Physical Environment in Museum Visitor Experience," Ph.D. Dissertation

Proposal,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1990.

- [4] 정진아, 이희봉, “관람객 피로를 중심으로 본 박물관 현장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23권, 제2호, pp.183-186, 2003.
- [5] 이보아, “박물관·미술관의 마케팅 필요성에 관한 제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 경영학과 박물관·미술관 경영전문가 과정 제1차 학술세미나(가제본), p.8, 1998.
- [6] 이규황, *미술관 전시공간의 관람 만족도와 관람행태 상관성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7] 류지연, *20세기 초 현대미술전시 연구 2003 미술관학 강좌*, 국립현대미술관, 2003.
- [8] 소은혜, 이경룡, “박물관 서비스 품질과 방문동기가 관람객 만족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515-527, 2014.
- [9] Edward S. Robinson, *The Behavior of the Museum Visitor*,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 New Series No.5, 1928.
- [10] Melton. Arthur, *Problems of Installation in Museum of Art*, Washington, DC: Publication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 New Series No.14, 1985.
- [11] 문찬영, *관람객의 피로를 고려한 뮤지엄 건축의 휴식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12] 정재훈, 이경훈, “박물관에서 휴식 공간구성과 관람피로에 관한 실험 연구: 전시물에 대한 시지각적 피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제19권, 제8호, pp.25-32, 2003.
- [13] 윤성규, 임채진, “효율적 전시 관람을 위한 휴식 공간 구성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25권, 제3호, pp.103-110, 2009.

저 자 소 개

조 슬 아(Seul-A Jo)

정회원



- 2013년 3월 : Nihon University College of Art(사진학)
- 2016년 2월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경영학 석사)

<관심분야> : 박물관, 사진

고 정 민(Jeong-Min Ko)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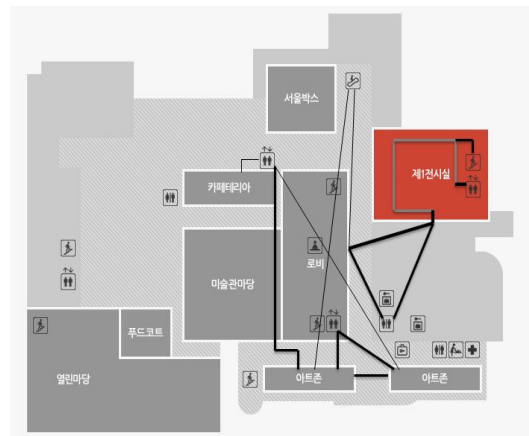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경영학학사)
- 1984년 2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경영학석사)
- 2006년 3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경영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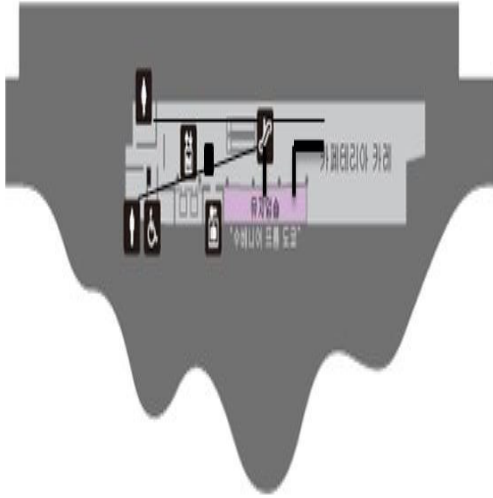
- 1986년 ~ 2009년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2010년 ~ 현재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2010년 ~ 현재 :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산업, 한류, CT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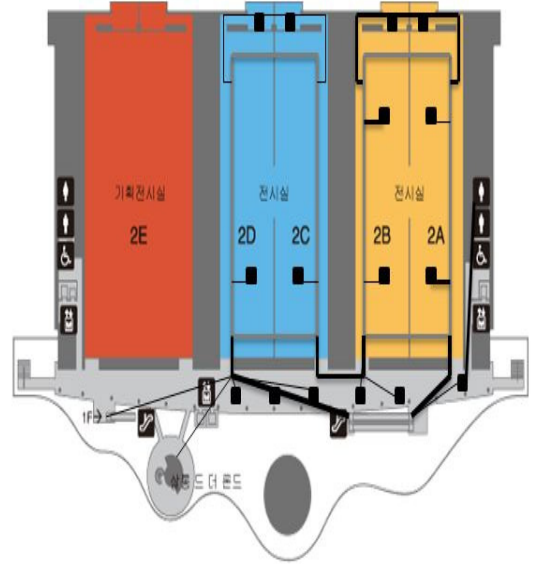
1. 국립현대미술관 1층 관람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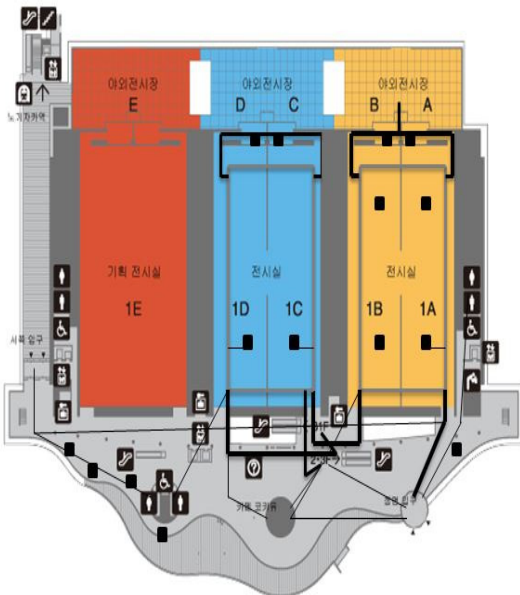
3. 국립신박물관(일본) 관람동선 b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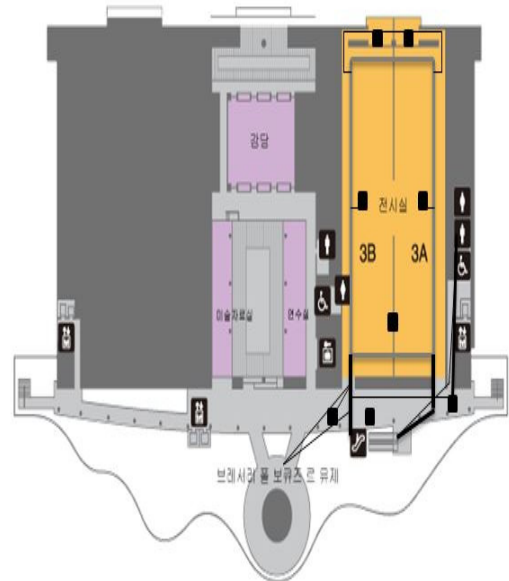
국립신박물관(일본) 관람동선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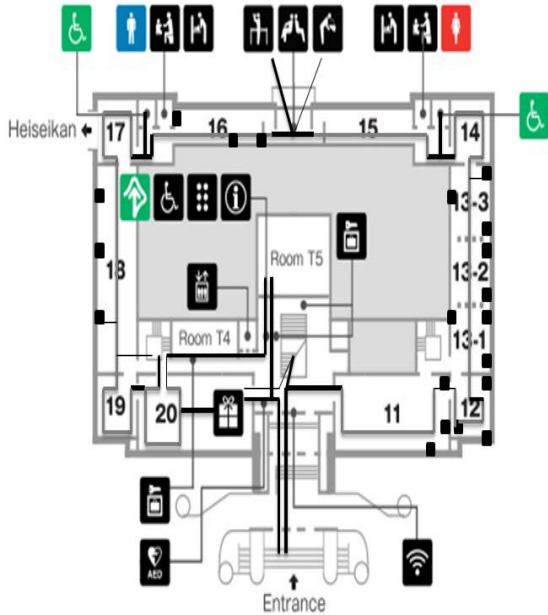
국립신박물관(일본) 관람동선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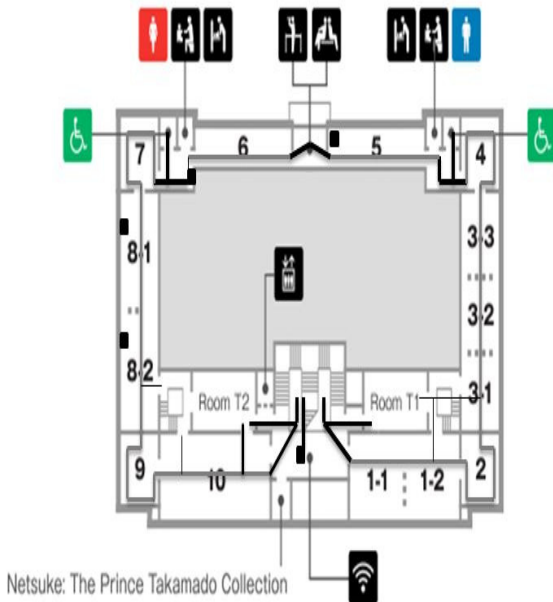
국립신박물관(일본) 관람동선 3층



4. 국립신박물관(일본) 관람동선 1층



국립신박물관(일본) 관람동선 2층



Netsuke: The Prince Takamado Collection

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0월 3일 1차 조사(예)

관찰 대상	관람동선	총 관람 시간
1인 관람객	남자 1층출입구-전시실1-계단(B1)-전시실2-전시실3-전시실4-전시실5-화장실-전시실6-전시실7-엘리베이터-1층출입구	78분 16초
	남자 1층출입구-에스컬레이터-전시실2-전시실3-전시실4-전시실5-의자착석-전시실6-전시실7-화장실-전시마당 앞 의자착석-엘리베이터-전시실1-1층출입구	35분 59초
2인 관람객	여2 1층출입구-에스컬레이터-전시실3-전시실4-전시실5-전시실7-화장실-전시마당 앞 의자착석-엘리베이터-1층출입구	28분46초
	여1남1 1층출입구-전시실1-엘리베이터-(B1)전시실2-전시실3-전시실4-화장실-전시실5-전시실6-전시실7-엘리베이터-아트존-1층출입구	60분52초
3인 관람객	여3 1층화장실-1층출입구-전시실1-계단-(B1)전시실2-전시실3-전시실4-전시실5-전시실6-전시실7-엘리베이터-1층출입구	45분 35초
	여3 1층화장실-1층출입구-전시실1-계단-(B1)전시실2-전시실3-전시실4-전시실5-의자착석-전시실6-전시실7-화장실-전시마당 앞 의자착석-엘리베이터-1층카페	60분 02초
가족 관람객	4명 1층출입구-전시실1-엘리베이터-(B1)전시실2-전시실4-화장실-전시실5-의자착석-전시실6-전시실7-화장실-엘리베이터-1층출입구	22분 77초
	4명 1층출입구-전시실1-엘리베이터-(B1)전시실2-전시실4-전시실5-화장실-전시실6-엘리베이터-1층출입구	40분